

# 중추농장이 대형화되고 있다

— 천광산업 아산중추전문농장 —

남 두 희

(본지 편집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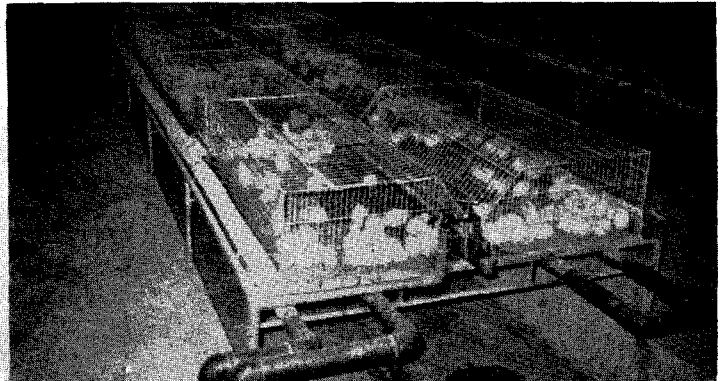
**양계** 산업이 국제화시대를 맞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분업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축산업발전을 선도해 온 채란계산업은 수년전부터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점차 분업을 통해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중추전문사육농장의 증가를 들 수 있겠다. 4~5년 전부터 경기도 광주 일원 등지에서 주문에 의해 중추전문사육농장이 생겨나고 일부 채란계부화장에서 자사 병아리를 입추, 어느정도 자란 후 분양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하나의 전문사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는 고도산업사회의 전문화경향에 따라 업종별로 전문성을 띤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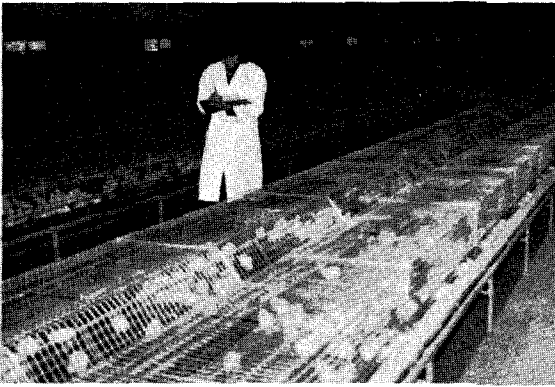
때를 맞추어 최근 천광산업(대표 유근홍)에서 충남 아산군 선장면 대흥리 1만5천평 부지위에

2천3백여평의 계사를 건축, 대단위 중추전문사육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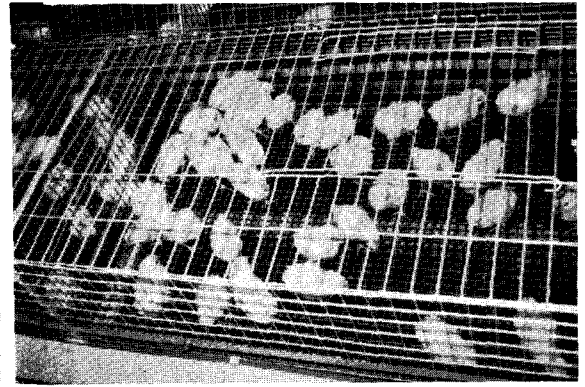
동사에서는 채란업이 대체적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으나 시설, 질병예방 등 육추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 전용시설을 갖추고 전



▲유추실온도를 33~35℃로 유지해준다  
(급온파이프와 스크레파시설이 보인다)



▲ 매일매일의 관리사항을 체크해 사양일지에 상세히 기록 유지한다.



▲ 적절한 환경으로 병아리분포가 일정하다 (유주실 1단 Cage)

문가로 하여금 전문적인 일을 담당케 함으로써 안정적인 체란계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양계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 동시에 9만수 입추가능

기존 산란계농장이 계속적인 입추로 오염도가 높아 질병측면에서 육추·육성율이 나쁜데다, 일년에 2~3회 사육을 위해 육추사를 만들 경우 시설비, 인건비 등의 과부담이 있으며 어릴때 잘 자라야 커서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등 육성계의 능력이 곧 산란능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닭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데 중추사육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광산업의 아산 중추 전문농장은 전 농장을 A, B, C 3개 군으로 분리해 각 군별로 육추사육성사를 두고 철저한 격리를 실시하고 있어 일단 한군에 입사한 닭은 그 안에서 일생을 지내고 출하된다.

계사는 자동급온장치(기름보일러), 강제환풍기, 계분제거용 스크레파, 자동사료급이기 등 전 자동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A군: 180평 계사 4동, B군: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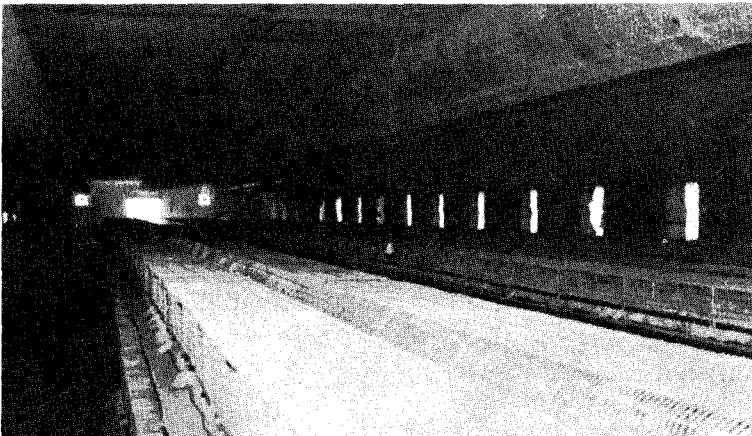
계사 4동, C군: 200평계사 4동).

무창계사에 전자동화된 농장은 한번에 9만수까지 동시입추할 수 있으며 87년도는 연간 70만수를 육성해 낼 계획이다.

각 계사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1인 1만5천수를 책임관리하며 35일간(5주) 초생추 cage에서 품종별 지침서에 의거 사육된 후 옆의 육성계사로 옮겨 70일령(10주령)까지 길러진다.

초생추용 육추사는 35일간 사육 후 완전소독을 실시하고 15일간 비워둔다. 이렇게 3반복을 실시 후에는 1달간을 비워두어 완전 올인 올아웃(all in-all out)을 실시한다.

육성중에도 산란계농장에 가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70일령 목표체중 830~850g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체중을 체크해 사양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는데 매일매일의 관리사항을 사양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해 후일 산란계농장에 중추와 함께 이양시켜 대추·산란기에도 지속적인 관리에 이용된다.



▲ 강제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육성계사 내부

## 35일령에 혈청검사실시

## 육성계(중추) 백신 프로그램

기간중 별표의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철저히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35일령 정도에는 혈청을 채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역가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는 계군에 대하여는 재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산란계농장으로 이양될때 혈청 검사성적도 함께 보내 산란계농장에서 대추관리와 산란기간 관리에 참조하게 된다.

본 농장에서 길러진 중추가 산란계 농장으로 출하되기전 전문소독팀이 농장에 출장, 사전 소독을 실시한 후 중추를 보내고 이후에도 산란피크가 올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관리지도를 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사육 전문가를 고용할 예정이다.

농장 방역관리를 위해 출입시 엄격한 통제와 샤워시설의 이용, 방역복을 색깔로 구분해 매일 갈아입히며, 농장전학은 VTR모니터를 이용해 하고 닭은 관리자 손으로 꺼내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보여준 후 도태시킨다는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어 기존의 농장보다 방역관리가 잘되어 있다 하겠다.

현재는 한품종만(닉칙) 기르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에 있는 전품종을 사육해 소비자(산란계농장)의 선택폭을 늘려나가며 계종별 데이터를 잡아나갈 예정이란다.

천광사업 아산중추전문농장은 지난 86년 8월 입추를 개시 시험 사육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는데 70일령 분양가를 마리당 1,700원으로 경기·충청일원에서 차차 전국으로 거래선을 확대할 예정이며 점차 계

약사육형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 채란계 규모 1~3만수 농장 중추입식 늘어

외국에서는 산란직전까지(110일령 전후) 육성농장에서 사육하지만 우리실정에서는 노계를 뺀 돈에 약간 웃돈을 얹어 구입할 수 있는 최소 경비부담 때문에 70일령 사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부화장의 판매부진으로 역지로 입추해 기르는 중추사육, 일부 산란계 또는 육계농장의 빈계사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키워내는 중추사육 등에 의해 가격덤핑을 유도(70일령, 1,400~1,500원) 산란계농장에서 일령에 대한 시비, 산란율저하, 백신미비 등 문제점이 많아 일부에서 중추사육에 대한 불신도 없지는 않다.

또한 산란중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불만을 중추사육농장에 전가해 시비가 이는 경우도 많다.

현재 산란계농장의 규모로 보아 1~3만수 규모 농장에서 중추사육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5만수

이상되는 대군양계에서는 중추사육이 기피되고 있는 것에 미루어 신뢰도가 높은 중추전문사육농장들이 더 많이 생겨 산란계농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5월 일부양계인들은 대기업의 양계업진출을 저지하는 모임을 갖고 천광산업측과 산란계농장진립을 중지해줄 것을 중용하자 이를 받아들여 중추전문사육농장으로 계사구조를 변경해 질병없는 건강하고 우수한 중추공급을 통해 채란계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근홍 동사 사장은 채란양계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중추를 완벽한 시설에서 생산, 출하한다는 목표로 중추사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동사는 양계외에도 사료, 양돈 등 축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령	백신접종	비고
1	IB(H 120)	부화장에서 MD 실시, 분무스프레이
6	FP	1차단침(7일디비킹 실시)
14	ND B <sub>1</sub>	1차음수
21	IBD	음수
28	IB(H120) + B <sub>1</sub>	IB 2차음수, B <sub>1</sub> 2차음수
35	ILT	1차 점안
36	ND 라소타	3차 음수
70	FP	2차 쌍침 (출하)
84	ILT	2차 점안

**정성과 관심은  
곧 생산증대**